

## 8월의 성탄절

# 왜 '8월 12일이 성탄절' 이 되는가

### 구세주의 생일이 곧 신도들의 생일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윤봉수)에서는 8월 12일 성탄절 경축예배를 성대히 치르며 구세주 조희성님의 89회 성탄을 감사와 기쁨을 듬뿍 담아 축하하였다. 전국에서 모여 온 신도들은 마귀에게 영적 포로가 되어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인류에 대한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 "성탄절은 조희성 구세주님이 탄강하신 날이지만 승리제단 신도들도 구세주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고로 구세주님의 생일이 곧 우리들의 생일이 된다"는 윤봉수 회장의 말씀에 모두 깊이 공감하며 구세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1부 예배에 이어 열린 2부 경축행사는 '주님말씀승경대회'로 열어 각 제단에서 성심을 다해 준비한 합창과 춤으로 주님말씀의 위대성과 고귀함을 표현하였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각 제단에서 준비한 요절말씀 퍼포먼스는 때로는 웃음과 때로는 함성으로 신도들에게 다가왔다.

### 초능력을 보여줘 구세주임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초창기

인류의 구세주께서 1981년 세상에 내려오신지 만민들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펼치신 지 만 38년 되었으니 뜨거운 한 여름 8월에 성탄절을 경축해온 햇수도 38년이 되었다. 물론 초창기에는 조희성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한 신도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전도관 박대선 장로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전도사 정도복에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희성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후 1981.8.18. 인류 구원의 웅대한 뜻을



우렁찬 음성과 절제된 움직임으로 요절송경을 해준 마산승리제단 식구들

품고 내려오실 때에는 혈혈단신이었으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오늘의 승리제단을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기 전에는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어야 믿는 무지한 인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세주는 불치병을 손도 안 대고 고쳐주기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몸이 불덩어리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분신(分身) 즉 수많은 몸으로 나누어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구세주라는 것이 인정된 계기는 바로 공산주의의 멸망이었다. 조희성님은 공산주의가 멸망당하기 칠팔년전부터 공산주의를 당신이 소멸시켰다고 공언을 하셨던 바 1990년 독일 통일로부터 촉발된 공산국가의 소멸 도미노가 일어나자 구세주임을 누구나 믿게 되었던 것이다.

### 12월 25일은 원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축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 오늘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12월 25일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1월 6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둔갑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로마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개종하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자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메시아의 날로 지켜오던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바꾸어 버렸다.

### 성경상의 구세주는 조희성 님이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예수를 성경 상의 구세주로 알고 있으니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견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성경 상의 구

세주는 예수가 아니라 조희성 선생이다. 왜 그런지 그 증거를 살펴보자.

첫째, 성경에는 구세주가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오게 되어 있다(요한계시록 2:28). 조희성 선생의 이름 '희성'은 밝을 희(熙)에 별 성(星)으로 밝은 별을 뜻하는데, 새벽 4시에 출생하였으므로 밝은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을 집안의 학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던 것이다.

둘째, 양띠로(계시록 5:7) 출현하여야 한다. 성경은 구원 얻을 자를 양이라고 하였고, 고대부터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을 양으로 바쳤다. 이것은 구세주가 양띠로 오신다는 뜻이다. 조희성 선생은 신미생 양띠이다.

셋째, 구세주는 동방에서(이사야 41:1-9), 단군의 자손으로(창세기 49:16) 출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또한 구세주는 그 증표로서 죄악을 완전히 벗은 이긴 의인의 표상으로 이슬을 가지고(요한계시록 2:17, 호세아 14:5)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춘 분이 바로 조희성 선생이시다. 따라서 조희성 선생의 출생일인 8월 12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므로 예수가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 될 수도 없으며, 진정한 구세주가 탄생한 날인 8월 12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를 기리며 칭송하는 메시아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였다. 바로 알고 영생의 승리제단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부처님일 때에는 현재와 같은 몸이 아니었다. 빛의 몸이었다.

부처였던 사람의 조상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음신(陰神)인 마귀나라는 의식(의상)으로 존재한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귀의 업장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부처의 후손인고로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성불, 즉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속박하고 있는 마귀를 죽여 없애야 한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5)  
"마귀(魔鬼) 성(城)"

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마귀성(魔鬼城)이요, 마귀의 영(靈)이요, 마귀의 영육(靈獄)이요, 마귀의 육신(肉身)인 것이다.

그런고로 나라고 하는 의식(意識)만 제거(除去)하면, 나라고 하는 것만 없애 버리면, 마귀 집을 부숴다가 되고 마귀 영육(魔鬼靈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되는 고로, 마귀 나라가 망했다가 되

고 하나님이 점령했다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는 비결은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면,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라고 하는 마귀성(魔鬼城)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 노년행복설계하기 현 정부의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

노인 및 고령화 문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다소 늦게 이슈화된 점은 아쉽지만,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노인문제와 대책에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폭 넓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의 강화(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원, 노인공동작업의 설치·확대 등)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종전의 시설중심의 사업에서 지역과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지원, 노인의 집과 경로식당의 운영비 지원, 1인세대(독거노인)에 대한 간호·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생활보호자 지원의 현실화, 선연직이며 단순노동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고용촉진법의 내실화, 현노인(現老人) 인구집단에 대한 무각출 연금제의 실시, 경로우대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젊고 건강할 때, 인생의 행복한 설계를 위해 노후 및 고령화에 대한 준비된 삶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강화, 치매노인사업(치매노인의 등록·상담, 치매 전문의료시설의 설치)의 강화, 재가노인(在家人) 복지사업(사업비 지원, 가정봉사원(home-helper, 가정도우미)의 파견사업 지원, 주간보호사업·단기보

호사업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전의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가정·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의료비의 저가지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존경받으며 건강하게 활동하는 노인 상(象)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분위기의 조성(경로의 달, 경로의 날, 부모의 날 설치, 경로우대제 확충, 노부모 봉양의식의 양양), 생산적인 여가활동(전국 약 7만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가시설의 등록과 관리, 노인봉사활동의 활성화(노인에 의한 환경관리, 교통정리, 한문선생 등의 활동과 봉사수당의 지급)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다 근원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시는 자손에게 세세 감면, 봉양비 지원, 3세대아파트의 건립과 분양 등 뚜렷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과 노부모봉양 의식을 북돋아 생활의 윤리규범으로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고령력·고경제력 인구가 노인인구집단으로 편입되며, 이 시기의 국력신장과 삶의 질을 아울러 생각할 때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그 방향과 사업내용이 더욱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책에 일침을 가하자면, 사후약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올바른 생활관과 노인 상(象)을 교육하고 계도(啓導)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 성불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여 많은 불자들은 견성성불을 목표로 구도를 한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그 부처가 되기 위하여 팔정도(八正道)를 닦고 육바라밀을 행한다.

많은 불자들이 위빠사나, 참선공부, 염불, 호흡명상 등 여러 방법으로 수도를 하지만 진적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성불하려고 하는지 근기가 약하기도 하거나 과연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불성이 못 중생들에게 있다고는 하나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교의 약점이다.

성불을 하려면 먼저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인과법칙은 진리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법이다. 몸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난다.

인과법칙이 진리인고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아메바가 발달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흙에서 창조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성불을 하는 데에는 사람이 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성불할 수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조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부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피로써 마음이 조성되니 불성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삼신일체) 一人出된 眞人(진인)의 증표인 甘露(감로)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9 6.19. 보광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나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